

금정중학교 박민준군 과학영재교 수석 합격

부산 중립 학교 법인 금정학원(이사장 계전) 산하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에 재학 중인 3학년 박민준군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박민준군은 영재학교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전국의 수재 2654명이 응시한 가운데, 18.4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과학캠프 및 심층 면접 총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 과학 통합 최우수 및 수학부문 최우수 합격으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평소 박군은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착실하고 바른 모범생으로 평평이 나왔다. 또한 어머니 역시 교내 학부모 불자모임 반야불자회의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위에서는 불심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칭찬했다.

박군을 배출한 금정중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영재학교 합격생을 배출함으로써 부산 청소년 불자 인재발사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정중학교 현익재 교장은 "박민준군이 훌륭한 과학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연 기자

국제청소년 회원 모집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사)한나문화재단에서는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청소년회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생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하고,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있으면 된다.

합격하면 매월 국제부가 주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도우미 활동을 한다. 도우미로 선정된 학생의 어머니도 국제부 후원회 회원 자격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매월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증명서도 발급한다. 접수는 9월 20일까지, 영어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051)508-0345 박지연 기자

풍성한 한가위 복지관과 함께

송편·쌀·과일 나눔, 성금·장학금 전달 ... 자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3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소외계층에게 명절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기 마련. 후원 손길도 확 줄어 '명절이 더 외로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저마다 한가위 축제를 마련해 훈훈한 나눔과 자비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회장 지연, 055-636-8634)는 거제지역 연인 및 외국인 노동자 1500여 명을 초청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9월 7일 거제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잔치에서는 문화공연, 이마용 봉사,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점심 공양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두송복지관(이사장 지현, 051-265-9471)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9월 12일 추석맞이 기쁨의 쌀 지급'과 '음식나누기 사업'을 진행한다. 기쁨의 쌀 지급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100세대에 쌀 10kg을 전달한다. 음식나누기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식사해결이 어려운 세대에 명절 연휴동안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라면 등 20가지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선물세트와 직접 배달해 명절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물운대복지관(관장 정련, 051-264-9033)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누기'를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다대 1동 운동대 영구입대아파트 단지외 다대본동 내 7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및 조손가정 130세대에 생필품과 송편을 전달한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중, 051-866-0454)는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총 150세대에 쌀을 전달하는 '한가위 정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양정정소



'추석' 자비 나눔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두송복지관에서 실시한 명절맞이 음식나누기 현장.

년수련관에서 1시간 동안 유치원 어린이들의 울동과 악기연주와 참가자들 간의 소개 시간, 후원물품 전달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에서는 지역 주민의 따뜻한 사랑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

대를 초청해 쌀 전달 및 다양한 어울림 공연을 준비한다. (사)삼남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 051-898-2672)은 9월 9일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100세대에 각 1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내외 이사장 정연 스님은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정을 느끼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연 기자 hdbp@hanmail.net

"행복한 사회 만드는 데 헌신"

부산불교지도자포럼 9월 월례회의

부산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를 이끄는 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설동근)이 9월 2일 오후 7시 해운정사에

서 9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운정사 방장 진제 스님은 특별

했다. 하지만 촛불시위 수배자의 수배해제까지 요구한 것은 안타까웠다"며 "우리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불교의대중화와 문화 창달, 나아가 참된 삶의 지혜를 발휘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연 기자

했다. 하지만 촛불시위 수배자의 수배해제까지 요구한 것은 안타까웠다"며 "우리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불교의대중화와 문화 창달, 나아가 참된 삶의 지혜를 발휘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부산지사 : (051)632-4440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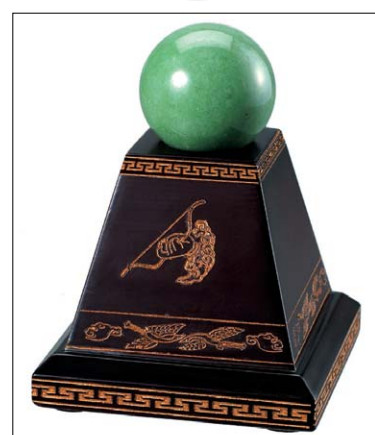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가 힘든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중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월드컵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딸이 사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도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돌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부, 은나노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구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